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몰디브

보석처럼 꽃처럼 예쁜 섬들의 나라





몰디브. 가보지 않고 이름만으로도 낯익은 곳, 깨끗한 물에 이제 막 푸른색 물감을 풀어 금방이라도 옷에 푸른색이 예쁘게 물들 듯한 곳. 스리랑카의 남서쪽으로 700km 남짓의 인도양 중북부에 길이 820km, 폭 130km로 길게 흩뿌려진 1천196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 ‘몰디브’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화관(花冠)을 뜻한다. 수많은 섬이 별처럼, 보석처럼, 꽃처럼 아름다워 딱 들어맞는 이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220여 개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주민이 1천 명을 넘는 섬은 19개뿐이다. 리조트가 들어선 ‘리조트 섬’ 90여 개와 경작지, 공장, 교도소, 공항 등의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18개 섬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인도다.

인도양의 꽃

12~13세기에 활약한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여행가인 마르코 폴로는 몰디브를 일컬어 ‘인도양의 꽃’이라고 했다. 이어 14세기에 아랍의 여행가이자 작가로 이름을 떨친 이븐 바투타는 몰디브를 보고 나서 “세계의 경이로움 중 하나”라며 극찬했다. 이들의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깨끗하고 새파란 바다, 이글거리는 태양, 태양 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나는 모래밭,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섬들... 혹시 문명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오만을 깨우치기라도 하려는 것일까? 몰디브는 참으로 오랫동안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움을 간직해 왔다.

그렇기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은 아니다. 산호와 모래가 많고 토질에 수분 함유량이 적은 데다 알칼리성마저 띠고 있어 농사가 어렵다. 각각의 섬은 면적이 작아 강은커녕 연못 파기에도 적당하지 않다. 섬과 섬을 넘나들게 된 것조차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현대의 문명과 기술, 관광이 접목되지 않았다면 몰디브는 아직까지도 고기잡이가 생계의 전부인 적도 부근의 자그마한 빈국으로 남아 있었을지 모른다.

1972년 관광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리조트가 건설된 지 39년. 이제는 관광이 몰디브 경제를 이끌어 가며 전체 근로자의 60%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살기 편해진 것은 사실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부담도 겹머지게 됐다. 게다가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020년쯤 몰디브가 수면 아래로 잠겨 버릴 것이라는 일부 과학자의 예상은 몰디브인의 마음에 더욱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뒤늦게나마 섬에 부지런히 나무를 심는 몰디브인을 보고 있노라면 여태껏 그들을 존재하게 하고 보호해 왔던 자연을 이제는 거꾸로 그



새파란 바다와 어우러진 코코팜 보두히티 리조트는 모래와 자갈이 쌓여 만들어진 모래톱, 자연스러운 산책로 등과 어우러져 열대 낙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센타라 리조트는 둘만의 사랑을 꿈꾸는 신혼부부, 편안한 휴식을 찾으려는 가족, 인도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는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하다.



몰디브에 세 번째로 들어선 바로스 리조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발코니나 욕조에서 바라보는 산호와 불타는 석양 풍경은 세상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들이 보호해야 하는 아픔이 진하게 느껴진다.

적도에 위치해 밤과 낮의 길이 비슷

몰디브는 한국과 직선거리로 6천600km가량 떨어져 있다. 직항로가 개설돼 있지 않아 싱가포르나 도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야 하므로 9시간가량 비행기를 타야 한다. 리조트에 따라서는 수도인 말레보다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아일랜드 타임'이 적용되는 곳도 있다. 여행자가 시차로 인한 피로에서 원기를 빨리 회복하도록 돕고 더 쾌적하고 조용히 머물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한국인을 빗대어 '코리아 타임'이라고 하지만 몰디브인도 '몰디비안 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간관념이 느린 편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차분하고 여유로운 몰디브인의 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모처럼 맘먹고 떠난 여행에 비가 오느냐 마느냐는 여행자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지만 기온은 연중 29℃ 내외로 일정하다. 하루 중의 기온 차가 별로 없고 계절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어 밤과 낮의 길이도 거의 비슷하다. 해는 매일 아침 6시 무렵 뜨고 오후 6시쯤이면 어김없이 진다. 5~11월이 우기에 해당하나 요즘은 날씨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지구온난화 탓인지 5~6월 중순까지는 건조하고 6월 말쯤 우기가 시작돼 8월까지 이어진다. 9~11월에도 비가 내리긴 하나 좋은 날씨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인 관광객은 비자를 받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무비자로는 30일 동안만 체류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각 여행자는 하루에 적어도 25달러 이상의 경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가 대중화되면서 이에 대한 검사가 거의 사라졌다.

자연과 고객을 모두 배려하는 코코팜 보두히티 리조트

푸른 바다는 물론이고 모래와 자갈이 쌓여 만들어진 모래톱(sandbank), 자연스러운 산책로 등으로 열대 낙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한 최고급 리조트. 고객을 배려하는 것 못지않게 자연을 지키는 것이 이 리조트의 운영 방침인 덕분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애쓰면서도 투숙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여기저기 엿보인다. 울창한 수풀과 눈부신 백사장, 에메랄드빛을 닮은 라군(lagoon; 수심이 얇은 호수)은 마음속까지 맑게 정화시켜 준다. 100개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모든 객실이 개인생활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몰디브의 바다를 즐기려면 센타라 리조트

둘만의 달콤한 사랑과 낭만을 꿈꾸는 신혼부부, 편안한 휴식을 찾으려는 가족, 인도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는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한 리조트. 일곱 종류의 다양한 객실 가운데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객실은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시원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하얀 원목이 주를 이루며 편안한 휴식을 도와주는 가구와 시설 배치가 돋보인다. 하지만 압권은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산호들이다. 형형색색의 산호와 여기에 서식하는 열대어 떼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몰디브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치는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가 지적에 있어 다소 정적인 리조트에서의 시간을 활동적으로 만들어 준다. 별도의 비용 없이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식사 전후에는 2곳의 바에서 무료로 칵테일, 와인, 맥주, 음료도 즐길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의 바로스 리조트

몰디브에서 세 번째로 1973년에 지어졌으나 1년6개월의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2006년 신장개업한 고품격 리조트. 오랜 역사와 전통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리조트 내에 몰디브 관광산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을 짓고 있다. 가로 350m, 세로 250m의 귀여운 섬과 눈부신 바다, 아름다운 산호 군락은 리조트의 고급스러움을 완성시켜 주는 자연의 요소들이다. 덕분에 스노클링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예약률이 90%를 웃돌고 60%가 넘는 재방문율은 리조트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대변한다. 야자 잎으로 지붕을 이은 객실 내부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낭만적이다. 대대적인 개보수 과정에서 설비가 대폭 강화돼 와이파이가, DVD 플레이어, 커피 머신 등도 갖췄다. 발코니나 옥소에서 바라보는 산호와 오렌지 빛깔로 불타는 석양은 세상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데 최고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자료·사진제공_여행박사



깨끗하고 파란 바다, 이글거리는 태양, 태양 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나는 모래밭, 별처럼, 보석처럼, 꽃처럼 아름다운 섬들. 몰디브는 참으로 오랫동안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움을 간직해 왔다.



1972년 관광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리조트가 건설된 지 39년. 이제는 관광이 몰디브 경제를 이끌어 가며 전체 근로자의 60%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여행상품 소개

- 기간 : 9월4일~11월28일
- 일정 : 출발 기준 4박7일
- 가격 : 센타라 리조트에서의 여행 199만 원부터.
- 특전 : 왕복 항공권, 리조트 4박, 전 일정 식사, 음료, 바비큐, 수상 스포츠 등
- 문의 : 여행박사 070-7017-2664 / www.tourbaksa.com